

濕熱病의 形象醫學的 高찰 및 치료 -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강경화 · 조장수¹ ·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 동의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1: 경희대학교 내과학교실

Review and Treatment of Damp Heat disease in Hyungsang Medicine

Kyung Hwa Kang, Jang Su Cho¹, Kyung Chu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l University
1: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amp Heat is a combination of Damp and Heat if conditioned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constitutes vital Ki as well as pathogenic Ki. Damp Heat, as vital Ki, is one of the essential factors in forming the body and preserving life activity, and on the other hand, as pathogenic Ki, it causes unclear mentality, gastric discomfort with acid regurgitation, San disease(疝病), cardiac beriberi, flaccidity symptoms, muscular atonia or contracture and dark or cloudy urine. In Hyungsang Medicine, the Dam type develops Damp Heat disease mostly due to Heat, and the treatment is to promote urination by clearing Heat; on the other hand, in the Bangwang type, Damp is the major cause and the treatment is to induce sweating and eliminate Damp.

Key words : Hyungsang Medicine(形象醫學), Damp Heat disease

서론

濕熱은 만물형성과 인체구성의 기본적 요소인 濕土와 만물 및 인체의 생명력과 활동력을 주관하는 熱火가 결합한 것으로 단순히 邪氣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正氣로서의 인체를 주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¹⁾ 濕熱이란 용어는 《黃帝內經》의 〈素問·生氣通天論〉²⁾과 〈素問·六元正紀大論〉³⁾에서 처음言及되었으며, 그 理論은 金·元 시대의 朱丹溪에 이르러 集大成된 以後로 臨床에 많이 適用되었다. 특히 《東醫寶鑑》의 〈濕門〉⁴⁾에서는 “모든 六氣 中 濕熱로 病이 되는 것이 十의 八~九” 라 하여 그 重要性을 인식하였다.

《東醫寶鑑》에서의 濕熱病의 主症狀은 遍身黃如熏色⁵⁾, 小便澀⁶⁾, 頭不清⁷⁾ 맥완대⁸⁾하고, 主疾患은 脚氣⁹⁾, 疝病¹⁰⁾, 筋緩急¹¹⁾, 脹滿¹²⁾, 黃疸¹³⁾, 帶下¹⁴⁾, 小便赤白濁¹⁵⁾, 痢疾¹⁶⁾, 蟲病¹⁷⁾ 등이 있다. 濕熱病의 시대적 여건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로 외적인 지리적 환경이나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외적으로는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내적으로는 서구음식문화의 대중화와 과도한 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음주문화로 인한 內傷 등으로 오히려 과거의 내외요인으로 유발된

濕熱病보다 더욱 많은 종류와 난치에 해당하는 濕熱病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濕熱의 邪氣에 의한 脹滿과 黃疸의 肝臟疾患, 吞酸¹⁸⁾과 嘈雜¹⁹⁾의 胃腸疾患, 疥癬²⁰⁾과 搔痒²¹⁾의 皮膚疾患, 脚氣와 歷節風²²⁾의 關節疾患 등이 많아지고 특히 腎不全症²³⁾이나 筋無力症²⁴⁾ 같은 難治病이 유발되고 있다.

- 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pp. 102~103
- 2) 精校黃帝內經, p. 14 “...因于濕, 首如裹, 濕熱不攘, 大筋緩短, 小筋弛長...”
- 3) 精校黃帝內經, p. 156
“四之氣, 溽暑濕熱相薄, 爭於左之上. 民病黃暈而爲附腫”
- 4) 東醫寶鑑, p. 1090
- 5) 東醫寶鑑, p. 1085
- 6) 東醫寶鑑, p. 1085
- 7) 東醫寶鑑, p. 1090
- 8) 東醫寶鑑, p. 1086
- 9) 東醫寶鑑, p. 777
- 10) 東醫寶鑑, pp. 803~804
- 11) 東醫寶鑑, pp. 759~760
- 12) 東醫寶鑑, p. 1316
- 13) 東醫寶鑑, p. 1345
- 14) 東醫寶鑑, p. 370
- 15) 東醫寶鑑, p. 419
- 16) 東醫寶鑑, p. 447
- 17) 東醫寶鑑, p. 381~382
- 18) 東醫寶鑑, p. 1149
- 19) 東醫寶鑑, p. 1152
- 20) 東醫寶鑑, p. 1490~1491
- 21) 東醫寶鑑, p. 728
- 22) 東醫寶鑑, p. 979
- 23) 東醫腎系內科學, p. 437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신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ytlee@dongeui.ac.kr Tel : 051-850-8635

· 접수: 2002/06/07 · 수정: 2002/06/30 · 채택 : 2002/07/29

이에 저자는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濕熱의 개념과 생성 및 분포를 고찰하며 아울러 형상의학적 관점에서의 濕熱病을 잘 유발시키는 유형을 제시하고 그 유형에 따라 形色脈症의 습-을 통한 진단 및 치법으로 얻은 臨床例를 발표하는 바이다.

본론 및 고찰

1. 濕熱의 개념과 생성

1) 濕熱의 개념

六氣는 正氣와 邪氣로써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외적인 六氣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내부에도 존재한다. 濕熱은 濕과 熱이 結合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內外에 따라 正氣와 邪氣의 概念이 다르다. 正氣로서의 內的인 濕熱의 概念은 다음과 같다. 濕은 五行으로 보면 土의 性質을 가지고 있고 水와 火의 中間段階로 作用하여 人體를 構成하는 가장 基本的 要素가 되며 人體의 活動을 可能하게 하는 物質的 要素로써 作用한다. 土는 萬物의 中央에 位置하여 氣로써는 化氣化血²⁵⁾의 作用을 일으키고, 味로써는 緩²⁶⁾하게 하는 作用을 일으켜 人體가 偏僻되지 못하게 하는 中和機能을 行하고 있다. 熱은 五行으로 보면 火의 性質을 가지고 있으며 人體의 生命力和 活動力을 可能하게 하는 重要한 要素이고 氣로써는 浮長²⁷⁾하게 하고 味로써는 굳히게(堅)²⁸⁾하는 作用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正氣로서의 濕熱에 대해 姜²⁹⁾은 “人體는 濕熱이 없으면 四體를 運行할 수 없다.” 고 하였고, 또한 박³⁰⁾은 “四肢를 쓰게 하는 것도 濕熱이고, 四肢를 못쓰게 되는 것도 濕熱이다.” 라고 하여 그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므로 內的인 濕熱은 人體의 構成 및 活動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素中 하나이다.

正氣로서의 外的인 濕熱의 概念은 다음과 같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와 같이 인간 또한 적절한 습도 內에 존재하므로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온도 內에 존재하므로 성장과 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外的인 濕熱은 인간의 生命維持에 根本要素中 하나이다. 邪氣로서의 內外濕熱을 날씨에 비교하면 덥고 눅눅하여 온갖 雜菌이 茂盛해질 때이므로 인체도 그의 運行力이 低下되어 氣血의 循環이 圓滑하지 못하고 濕熱을 停滯시켜 온갖 濕熱疾患을 낳게 만든다.

이상에서 적절한 內的인 濕熱은 인체에 正氣로서 작용하고 과하거나 부족하면 邪氣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濕熱의 생성

濕熱을 일으키는 원인은 내적 및 외적요인으로 大別이 되는데 內的要因으로는 첫째, 膏粱厚味³¹⁾, 魚膾와 生菜過食³²⁾, 저녁에 過食하는 것³³⁾, 過度한 飲酒³⁴⁾, 食事 後에 움직이지 않는 것³⁵⁾ 등의 內傷과 聯關된 것이 있고, 둘째, 七情損傷³⁶⁾이 있다. 外的要因으로는 場所로 보서는 東南地方³⁷⁾³⁸⁾의 低地帶와 熱帶地方에서 많이 발생하고, 계절로는 여름철 특히 長夏³⁹⁾에 많이 發生한다. 內部에서의 濕熱은 飲食物에 의한 內傷 또는 體質的으로 脾臟이 弱하여 脾臟의 運化機能⁴⁰⁾이 減退하면 食積이 되고 점차 濕이 鬱쳐서 이것이 오래되면 熱을 일으켜 결국 濕熱이 發生하게 된다. 그리고 七情損傷에 의한 특히 스트레스와 같은 氣鬱의 狀態가 持續되면 氣血의 運行이 더디어져 濕이 停滯되고 熱이 發生하여 濕熱이 造成되게 된다. 外部에서의 濕熱은 場所 및 季節 등과 같은 環境에 따라 천지의 氣運中 濕과 熱이 結合하면 濕熱이 조성되고 또한 公기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濕熱이 발생하게 된다.

2. 《東醫寶鑑》에 나타나는 濕熱病의 分布

《東醫寶鑑》에 나타나는 濕熱病의 分布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內景篇에서는 精門의 精滑脫, 氣門의 氣痛, 神門의 驚悸, 津液門의 汗因濕熱과 自汗, 痰飲門의 食痰과 痰飲通治藥, 肝臟門의 草龍膽, 胞門의 血崩血漏와 帶下, 蟲門의 九蟲과 濕熱生蟲, 小便門의 諸淋證과 赤白濁 및 莖中痒痛, 大便門의 暑泄과 赤痢 및 白痢와 膿血痢에 나타난다. 둘째, 外形篇에서는 頭門의 頭目不清利와 正頭痛 및 濕熱頭痛, 眼門의 兩臉粘睛, 鼻門의 鼻痔, 牙齒門의 牙齒痛有七과 熱痛, 背門의 背偻偻, 乳門의 乳癰, 腹門의 腹中狹窄, 腰門의 食積腰痛과 濕熱腰痛, 皮門 麻木의 人蔘益氣湯, 筋門의 筋急筋緩, 骨門의 骨痛, 足門의 脚氣와 痿病, 毛髮門의 鬚髮黃落, 前陰門의 疝病과 陰縱陰縮 및 婦人陰門諸疾, 後陰門의 痔病과 腸風膿毒에 나타난다. 셋째, 雜病篇에서는 天地運氣門의 南北病治法과 六十年客氣旁通圖, 下門의 下藥, 風門의 歷節風과 破傷風形證, 寒門의 壞症, 暑門의 夏暑宜補氣, 濕門의 濕乃水氣와 火熱生濕 및 寒濕과 濕熱, 燥門의 燥因血少와 燥者肺金之病, 火門의 通治火熱藥法, 內傷門의 枳實滯導丸과 補中益氣

24) 筋無力症에 해당하는 韓醫學의 症狀으로는 筋緩急과 痿症 및 四肢不用 등이 있다.

25) 東醫寶鑑, p. 1781

26) 東醫寶鑑, p. 1781

27) 東醫寶鑑, p. 1781

28) 東醫寶鑑, p. 1781

29) 姜天奉, '易' 啓蒙傳疑研究, 서울, 蓋馬書院, 1974, p. 50.

“대개 天地가 初生할 때에 다만 燥濕의 二氣만이 있을 따름이니, 燥는 陽이 되고, 濕은 陰이 되며, 燥는 火가 되고 濕은 水가 되었다. 모든 物件이 濕氣가 아니면 動하지 못하므로 天은 海水가 없으면 能히 運行치 못하고, 眼은 瀧水가 없으면 구르지 못하고, 舌은 唾液이 없으면 呑들지 못한다. 또한 모든 物件은 燥氣가 없으면 動하지 못하므로 天이 震雷가 아니면 萬物을 轉動할 수 없고, 땅이 火가 아니면 萬物을 長成할 수 없고, 人物이 濕熱이 아니면 四體를 運行할 수 없다. 또 濕積하면 장차 燥氣가 되고 燥積하면 장차 濕氣가 되나니, 이는 變化의 妙用인 것이다.”

30) 朴仁圭,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p. 374

31) 編註醫學入門, p. 1514

“濕兼熱者, 長夏暑濕相搏, 或因膏粱 成濕熱者亦同.”

32) 編註醫學入門, p. 1602

“諸蟲皆因飲食不節, 或飢飽失宜, 或過飽醒膈炙燥, 或蒸, 芎同食, 以致中脘 氣虛不運而成積, 積久成熱, 濕熱薰蒸, 痰與瘀血凝結, 隨五行之氣變化, 而爲諸般奇怪之形, 若腐草爲螢是也.”

33) 東醫寶鑑, p. 784

34) 編註醫學入門, p. 1597 “因醉飽入房, 濕熱鬱於脾土”

35) 東醫寶鑑, p. 784

36) 編註醫學入門, p. 1549 “...多因七情飲食, 鬱爲濕熱...”

37) 編註醫學入門, p. 1214

“東南 山谷 地氣 濕熱 病多自汗西北 高燥 地氣寒涼 病多無汗”

38) 景岳全書 上, p. 649 “... 土近東南 則火土合氣 而濕以化熱 ...”

39) 東醫寶鑑, p. 1077-1078

40) 新編丹溪心法附錄, p. 132

“... 濕熱之原 蓋因寒溫飢飽 失常喜怒 勞役過度 以傷脾胃 夫脾胃 乃水穀之海也 今脾胃受傷而動火 火則薰蒸水 穀而爲濕熱者也 又按胃司納 受脾胃 運化 今脾不能運化飲食 飲食停積 而生濕熱 ...”

· 症 : 무릎 以下가 붓는데 특히 날씨가 흐리면 더욱 심하다. 小便이不利하고 大便이 약간 便秘이면서 熱이 자주 오르고 땀이 난다. 不安과 焦燥가 자주 생긴다.

· 過去歷 : 人工流産을 여러 번 하였고 過去에 허리와 등이 많이 아팠다.

· 治療 및 經過 : 當歸拈痛湯⁵⁰⁾

· 考察 : 이 患者는 火性이면서 몸이 더운 사람으로 痰飲과 手術의 死血로 인한 小便不利로 下肢가 붓는 것이다. 眼胞가 부어 있지 않으므로 浮腫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흐린 날씨에 좋지 않으므로 三陰經의 濕熱을 없애는 當歸拈痛湯을 投與한 것이다. 특히 痰飲을 誘發하는 날 飲食과 찬 飲食을 禁忌하여야 하며 저녁의 過食을 節制해야 한다.

(3) 양○○(男子, 39歲) - 1998年 4月 25日 來院

· 形 : 코와 옆구리가 긴 走類이면서 筋體質의 體體

· 色 :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農事로 인하여 얼굴이 검고 손바닥이 노란 편이다.

· 脈 : 弦脈 76 肝 大腸 肝
> 膽 <
76 心 膽 肺

· 症 : 恒常 疲困하여서 눕고 싶고 本來 陰囊의 偏差가甚하다.

· 治療 및 經過 : 煖肝煎⁵¹⁾

· 考察 : 이 患者는 體體로 잘 動하는 體質인데 얼굴을 보니 濕熱이 있어서 疲困하고 몸이 무거운 것이다. 走類는 肝이 發達하였으므로 筋을 많이 使用하고 또한 봄이 되면 肝이 임금노릇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濕熱의 邪氣를 받아 그의 잘 動하는 本性에 障礙가 온 것이다. 특히 本來부터 疝症을 갖고 있으므로 窓門을 여는 방식이나 扇風機를 틀어 놓는 방식⁵²⁾으로 肝經의 活動力을 좋게 하는 煖肝煎을 投與한 것이다. 下焦를 달려주므로서 濕熱을 없애고 疝症을 治療해 주면 이 患者의 不便한 것을 改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精氣神血科

(1) 전○○(女子, 13歲) - 1994年 6月 28日 來院

· 形 : 神科

· 色 : 얼굴이 약간 붉다.

· 脈 : 92 心 膽 肝
> 膽 <
90 肝 大腸 肺

· 症 : 約 3個月 前부터 手足이 뒤틀리면서 가늘어지기 시작했는데 아프다고는 呼訴하지 않음.

· 過去歷 : 4歲 때부터 발의 모양과 말하는 것이 조금 異常하였음.

· 治療 및 經過 : 清燥湯⁵³⁾

· 考察 : 이 患者는 火性的의 神科로 濕熱에 의하여 手足이 癱瘓해진 경우이다. “熱이 佛鬱하면 濕이 쌓이고 燥金이 濕熱의 邪를 받아 能히 寒水를 生하지 못하면 결국 腎이 虧欠해져서 허리 以下가 癱瘓하여 진다”⁵⁴⁾고 하였으니 清燥湯을 投與한 것이다. 그

러나 이 患者는 本來 下焦가 弱한 神科이므로 濕熱의 邪氣를 除去시킨 以後에는 小兒 五軟症의 治療法 中 骨髓를 充滿하게 하는 六味地黃湯으로 本治를 계속 하여야 한다.

(2) 유○○(女子, 52歲) - 1998年 11月 7日 來院

· 形 : 얼굴이 길고 입이 발달함.

· 色 : 얼굴이 누렇고 浮澤하다.

· 脈 : 116 脾 小腸 心
> 膀胱 <
112 肺 膀胱 腎

· 症 : 手足關節이 어긋나고 말라 들어간다. 小便이 시원찮다. 渴症은 없다.

· 過去歷 : 1988년부터 류마티즘 關節炎을 앓고 있음.

· 治療 및 經過 : 清燥湯

11月 21日 來院 時에는 106, 104로 떨어지고 上記의 處方을 投與함. 12月 12日 來院 時에는 116, 102로 떨어지고 몸이 가벼워짐. 上記의 處方을 投與함. 1999年 1月 16日 來院 時에는 106, 106으로 떨어지고 上記의 處方을 投與함. 4月 10日 來院 時에는 114, 100으로 떨어지고 그 동안 다른 곳에서 藥鍼을 맞았다고 함. 上記의 處方을 投與함.

· 考察 : 이 患者는 濕熱로 인하여 下肢가 말라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風으로 因하여 關節이 어긋난 것이다. 얼굴이 긴 것은 血科에 해당하고 입이 발달한 것은 血虛한 것이므로 形 卽 四肢가 風寒濕을 排除할 能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疾病을 양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濕熱을 排除할 수 있게끔 清燥湯을 投與한 것이다.

3) 外形

(1) 황○○(男子, 60歲) - 1998年 10月 16日 來院

· 形 : 코가 굵보이며 下關이 빠지고 下肢가 가느다란 筋骨形의 體體

· 色 : 黑 (성질이 급하고 불과 같다.)

· 脈 : 浮大 86 脾 小腸 心
> 膀胱 <
84 胞 胃 腎

· 症 : 일 주일 전부터 右下肢를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 현재 右膝이 赤腫痛하고 발등이 부어 있다.

· 過去歷 : 痛風性 關節炎으로 左內足痛

· 治療 및 經過 : 滋血養筋湯⁵⁵⁾

· 考察 : 이 患者는 下體가 弱하고 下關이 빠진 體體로서 火가 盛하며 또한 地氣 卽 氣血이 不足하므로 濕熱이 造成되어 筋을 損傷한 것이다. 또한 脈이 脾臟에 떨어져 濕을 排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氣血을 養하면서 濕熱을 除去하는 滋血養筋湯을 投與하였다. 그러나 本來 筋骨形의 體體이고 性質이 急한 사람이므로 쉽게 治療되기는 어렵다고 思料된다.

(2) 정○○(男子, 47歲) - 1998年 7月 17日 來院

· 形 : 印堂이 陷沒하고 코가 휘었으며 鼻孔이 드러난 筋體質의 體體

· 色 : 面浮澤赤

50) 東醫寶鑑, p. 780

51) 方藥合編, p. 219

5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 80

53) 東醫寶鑑, p. 788

54) 東醫寶鑑, p. 1087

55) 東醫寶鑑, p. 787

· 脈 : 68 腎 三焦 心
 > 膀胱 <
 68 肺 膀胱 腎

· 症 : 右下肢가 저리고 어제부터는 걷기가 어렵다. 小便이 시원찮고 자주 본다.

· 過去歷 : 腰椎 椎間板脫出症

· 治療 및 經過 : 滋血養筋湯

· 考察 : 이 患者는 본래 風寒濕을 잘 排除할 수 있는 體質인데 얼굴이 浮澤赤하므로 濕熱에 損傷되어 筋을 滋養하지 못해서 허리 및 下體가 弱해진 것이고 또한 脈이 腎臟의 膀胱에 떨어졌으므로 風寒濕病으로 보고 上記의 處方을 投與하였다.

(3) 이○○(男子, 25歲) - 1996年 8月 10日 來院

· 形 : 體質이면서 팔과 다리가 길다.

· 色 : 얼굴에 때가 잘 생긴다.

· 脈 : 72 肝 大腸 肝
 > 膀胱 <
 74 心 膽 肺

· 症 : 머리가 맑지 않으면서 全身이 나른하고 허리가 아프며 大便이 묽게 나온다. 運轉하면서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을 많이 쐬다.

· 治療 및 經過 : 清暑益氣湯⁵⁶⁾

· 考察 : 이 환자는 體質로 여름을 이기기 어려운 體質이다. 잘 動하는 體質이지만 여름의 過度한 濕熱에 의하여 오히려 氣의 運行이 不足해지고 특히 長時間의 차가운 바람으로 困하여 배가 冷해졌으므로 氣를 돌구어 濕熱을 없애는 清暑益氣湯을 投與한 것이다.

(4) 최○○(男子, 37歲) - 1998年 5月 22日 來院

· 形 : 膀胱體에 가깝다. 近視

· 色 : 本來 흰데 지금은 약간 붉으면서 얼굴이 번들번들하다.

· 脈 : 84 脾 小腸 肝
 > 膽 <
 88 胞 胃 肺

· 症 : 현재 무릎과 발목이 부어 있고 하지가 약간 가늘어지고 있다. 하체에 땀이 조금씩 난다. 배고프면 짜증이 나고 저녁 식사를 많이 한다.

· 過去歷 : 무릎과 발목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治療 및 經過 : 滋血養筋湯

· 考察 : 이 患者는 膀胱體와 近視를 보아 少氣多血한 사람이다. 얼굴을 보니 濕熱의 氣運이 있는데 이것은 저녁의 過食으로 인하여 造成된 것으로 筋이 점점 弛緩되어 下肢가 弱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膽脈은 內傷으로 본다. 그러므로 上記의 處方을 投與한 것이다.

(5) 이○○(男子, 38歲) - 1995年 10月 7日 來院

· 形 : 肥大하고 눈썹이 매우 많으며 近視이다.

· 色 : 面赤

· 脈 : 86 脾 小腸 心
 > 膀胱 <
 84 胞 胃 腎

· 症 : 肘關節 以下가 저리다.

· 治療 및 經過 : 人蔘益氣湯⁵⁷⁾

· 考察 : 이 患者는 肥大하고 近視이며 눈썹이 많으므로 氣가 不足한 사람이다. 특히 男子의 上肢가 좋지 않으므로 天氣가 不足하여 運行力이 弱한 것이다. 또한 뚱뚱하여 濕이 많은 體質로 얼굴이 붉으니까 濕熱이 造成되어 팔이 저린 것이다. 脈이 脾臟의 膀胱에 떨어진 것은 氣가 不足하여 風寒濕에 相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氣를 돌구어 濕熱을 없애는 人蔘益氣湯을 投與한 것이다.

4) 六經形

(1) 이○○(男子, 31歲) - 1994年 10月 14日 來院

· 形 : 陽明形

· 色 : 面浮澤赤

· 脈 : 84 脾 小腸 心
 > 膀胱 <
 82 胞 胃 腎

· 症 : 땀이 많은데 특히 식사 중이나 후에 심하다. 식사를 너무 잘 함.

· 治療 및 經過 : 二甘湯⁵⁸⁾

· 考察 : 이 患者는 몸이 더운 陽明形으로 食事를 너무 잘 하여 脾臟에 濕熱이 造成되기 때문에 이 濕熱을 없애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脾臟의 濕熱을 없애는 二甘湯을 투여한 것이다.

(2) 제○○(男子, 54歲) - 1998年 10月 31日 來院

· 形 : 머리카락이 하얗고 살이 빠지며 陽明形이다. 몸이 더운 體質이다.

· 色 : 面浮澤赤

· 脈 : 108 肺 膀胱 肝
 > 膽 <
 112 心 膽 肺

· 症 : 7月 初에 夜嗽가 많았는데 지금은 낮에도 하고 8月 부터는 피가 조금씩 묻어 나오며 요즘에는 左手足이 無力하고 左胸이 아프며 허리까지 아프다.

· 過去歷 : 서울대병원에서 肺癌과 結核으로 診斷을 받았고, 結核藥을 服用 中이며 韓藥도 服用했다.

· 治療 및 經過 : 凝神飲子⁵⁹⁾

· 考察 : 이 患者는 몸이 더워서 濕熱이 造成되기 쉬운 體質로 菌의 繁殖이 茂盛하여 이와 같은 肺臟病을 앓게 되는 것이다. 肺臟은 燥한 臟器로 濕을 吸收하며 運行하는데 濕熱이 너무 過多하면 氣의 運行이 圓滑하지 못하기 때문에 蟲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濕熱을 없애는 凝神飲子를 투여한 것이다.

(3) 전○○(女子, 56歲) - 1994年 5月 29日 來院

· 形 : 가슴과 배가 매우 발달한 陽明形이며 몸이 더운 體質이다.

· 色 : 面浮澤赤

57) 東醫寶鑑, p. 755
 58) 東醫寶鑑, p. 261
 59) 東醫寶鑑, p. 392

56) 東醫寶鑑, p. 1078

· 脈 : 84 胞 胃 心
 > 膀胱 <
 82 脾 小腸 腎

· 症 : 左側 環跳穴部位에서 足少陽膽經으로 화닥화닥하면서 따끔따끔하고 발을 절뚝거리며 걷는다. 감기와 몸살을 자주 하면서 잘 붓고 숨이 찬다.

· 過去歷 : 人工流産을 네 번하고 高血壓藥을 4年 재 服用 中이며 호르몬 藥의 6個月 服用으로 體重이 15 kg 이나 增加하였다.

· 治療 및 經過 : 半夏左經湯⁶⁰⁾과 紫金錠⁶¹⁾

· 考察 : 이 患者는 陽明形이면서 얼굴이 浮澤赤하므로 濕熱이 造成되기 쉬운 사람이다. 또한 手術과 洋藥의 長期間 服用으로 氣血이 많이 損傷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疾病을 얻게 된 것이다. 陽明形이지만 膽經으로 症狀이 나타나니 麻黃左經湯을 投與한 것이다. 그리고 洋藥의 毒을 없애기 위해 紫金錠을 같이 投與하였다.

(4) 정○○(女子, 53歲) - 1996年 9月 20日 來院

· 形 : 陽明形이면서 몸이 덩다.

· 色 : 面浮澤赤

· 脈 : 62 肝 大腸 肝
 > 膽 <
 58 心 膽 肺

· 症 : 左側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大小便이 시원하지 않다.

· 過去歷 : 1995年 10월에 無血性壞死로 右側 環跳穴 部位를 手術했고 現在 高血壓藥을 服用 中이다.

· 治療 및 經過 : 大黃左經湯⁶²⁾ 10月 11日 來院 時에는 脈이 68, 72로 떨어지고 上記의 處方을 投與함.

· 考察 : 이 患者는 陽明形이면서 얼굴이 浮澤赤하므로 濕熱이 造成되기 쉬운 사람이고 또한 身熱者이므로 筋骨이 損傷되기 쉽다. 특히 뼈는 濕邪를 받게 되면 그의 단단한 性質을 잃게 되고, 熱邪를 받게 되면 녹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濕熱의 邪氣를 없애기 위해 大便과 小便을 調節시키는 大黃左經湯을 投與한 것이다.

(5) 김○○(男子, 29歲) - 1995年 3月 11日 來院

· 形 : 肥白한 陽明形이며 몸이 덩다.

· 色 : 얼굴이 붉다.

· 脈 : 90 胞 胃 肝
 > 膽 <
 90 脾 小腸 肺

· 症 : 痔疾이 있으며 大便을 보고 나면 피가 흐른다. 술을 많이 마시고 땀을 많이 흐른다.

· 治療 및 經過 : 乾葛湯⁶³⁾

· 考察 : 이 患者는 多氣多血의 陽明形으로 술로 인한 濕熱이 下注해서 筋을 損傷시켜 酒痔와 下血이 發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大小腸의 濕熱을 없애기 위해 乾葛湯을 쓴 것이다.

(6) 정○○(男子, 45歲) - 1996年 6月 1日 來院

· 形 : 陽明形

· 色 : 얼굴이 浮澤赤하다.

· 脈 : 84 脾 小腸 心
 > 膀胱 <
 82 胞 胃 腎

· 症 : 慢性 腎不全症으로 小便頻數하고 허리가 아픈데 특히 흐린 날씨에 甚하고 밤에 盜汗이 甚하다.

· 治療 및 經過 : 當歸拈痛湯

· 考察 : 이 患者는 陽明形으로 濕熱에 의하여 慢性腎不全症이 發生한 것이다. 本來 腎臟은 寒해야 하는데 濕熱로 因하여 그 機能이 喪失되어 上記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下焦의 濕熱을 없애는 當歸拈痛湯을 投與한 것이다.

(7) 홍○○(女子, 48歲) - 1998年 11月 14日 來院

· 形 : 陽明形이고 코와 입이 크다.

· 色 : 面이 浮澤赤하고 잡티가 많다.

· 脈 : 70 脾 小腸 肝
 > 膽 <

72 胞 胃 肺

· 症 : 신물이 오르고 배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것 같고 마음이 편해서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프지 않은 것 같다. 便秘가 있고 小便이 시원하지 못하면서 자주 붓고 生理痛이 甚하다.

· 治療 및 經過 : 增味二陳湯⁶⁴⁾ 12月 4日 來院 時에는 脈이 66, 62로 떨어지고 清熱調血湯⁶⁵⁾을 投與하였음. 1999年 1月 9日 來院 時에는 脈이 76, 70으로 떨어지고 平胃散 可 大黃, 桃仁 各 7分⁶⁶⁾을 投與하였음.

· 考察 : 이 患者는 陽明形으로 코와 입이 發達하여 痰火가 많고 多氣多血한 사람이다. 그리고 濕熱로 因한 內傷으로 呑酸症이 發生하였으므로 먼저 增味二陳湯을 投與하였고, 다음에는 生理痛을 呼訴하기에 氣血이 모두 實한데 쓰는 清熱調血湯을 投與하였으며, 마지막으로 便秘를 治療하기 위해 平胃散加味方을 投與한 것이다.

(8) 손○○(女子, 55歲) - 1997年 10月 3日 來院

· 形 : 얼굴이 길면서 準頭와 눈초리가 올라가 있다.

· 色 : 面色이 脫色됨.

· 脈 : 60 腎 三焦 心
 > 膀胱 <
 56 肝 大腸 腎

· 症 : 허리와 다리가 아픈데 특히 앞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펴기 어렵고 절면서 걷는다. 또한 눈이 침침하면서 자고 나면 잘 붓는다.

· 治療 및 經過 : 麻黃左經湯⁶⁷⁾

· 考察 : 이 患者는 六經形 中 太陽形으로 생긴 사람으로 少氣多血하기 때문에 風寒濕의 邪氣를 排除하지 못하여 濕熱이 造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症狀이 發生한 것이고 太陽形의 濕熱을

60) 東醫寶鑑, p. 779

61) 東醫寶鑑, p. 1538

62) 東醫寶鑑, p. 779

63) 東醫寶鑑, p. 835

64) 東醫寶鑑, p. 1152

65) 東醫寶鑑, p. 360

66) 方藥合編解說, p. 221

67) 東醫寶鑑, p. 779

없애주는 麻黃左經湯을 投與한 것이다.

5) 色

(1) 김○○(男子, 74歲) - 1998年 5月 2日 來院

· 色 : 面浮澤赤하고 입술이 붉다.

· 脈 : 96 胞 胃 肝
 > 膽 <

96 脾 小腸 肺

· 症 :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이 몇 년 되었는데 터질 듯이 아프다. 손바닥에서 땀이 많이 난다.

· 過去歷 : 左足에 세 번의 手術을 받았다.

· 治療 및 經過 : 滋血養筋湯

· 考察 : 이 患者는 얼굴이 浮澤赤하므로 濕熱이 造成된 것으로 氣血이 運行하지 못하여 筋을 滋養하지 못하고 또한 濕熱이 筋을 損傷시켜서 下肢가 나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氣血을 補하고 濕熱을 없애는 滋血養筋湯을 投與한 것이다.

(2) 권○○(男子, 35歲) - 1996年 6月 5日 來院

· 形 : 臍體

· 色 : 얼굴에 개기름이 끼어 번들번들하고 붉은 여드름 같은 것이 자주 생긴다.

· 脈 : 76 肝 大腸 肝
 > 膽 <

76 心 膽 肺

· 症 : 봄부터 百會穴 部位에서 脫毛가 시작되고 항상 大小便이 시원하지 않다. 業務關係로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

· 過去歷 : 肺結核

· 治療 및 經過 : 神仙不醉丹⁶⁸⁾ 7月 6日 來院 時에는 脈이 80, 80으로 떨어지고 얼굴이 많이 깨끗해짐. 上記의 處方을 投與함. 7月 22日 來院 時에는 濕熱의 邪氣가 거의 빠지고 술도 많이 줄었으므로 지금부터는 本治를 하기 위해서 生精補腎하는 延年益壽不老丹⁶⁹⁾을 約 9個月 정도 投與하였다. 1997年 4月 18日 來院 時에는 脈이 82, 76으로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거의 모두 생겼으며 얼굴도 살이 찌고 깨끗해졌다. 上記의 處方을 投與하였다.

· 考察 : 이 患者는 臍體로 술의 熱性과는 어울리지 않는데도 不拘하고 業務常 過度한 飲酒와 스트레스로 인한 濕熱의 造成이 脫毛의 原因이 된 것이다. 本來 머리는 차가워야 하는데 잘못된 生活의 法度로 因하여 오히려 머리가 더워졌으니 먼저 酒毒을 없애기 위해 神仙不醉丹을 投與한 것이고 以後에는 臍體의 精不足과 腎虛를 補하기 위하여 延年益壽不老丹을 계속 投與한 것이다. 요즘의 現代職場人들이 겪고 있는 代表的인 疾患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조○○(男子, 59歲) - 1997年 9月 27日 來院

· 形 : 얼굴이 突出되었고 下關이 빠졌으며 대머리이다.

· 色 : 얼굴이 붉고 잡티가 많다.

· 脈 : 84 胞 胃 肝
 > 膽 <

92 脾 小腸 肺

· 症 : 每日 술을 마시고 밥을 잘 먹지 못하며 다리에 힘이 없고 小便이 赤白濁하며 熱이 자주 나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 자주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 治療 및 經過 : 對金飲子⁷⁰⁾

· 考察 : 이 患者는 長期間의 飲酒로 因한 內傷으로 濕熱이 造成되어 上記의 症狀이 發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平胃散의 變方인 對金飲子를 投與하여 脾胃의 運化作用을 도와 濕熱을 없애는 治法을 使用한 것이다. 이때의 膽脈은 內傷과 七情損傷을 意味한다.

(4) 박○○(男子, 59歲) - 1999年 4月 3日 來院

· 形 : 얼굴이 길다.

· 色 : 面靑黑色이며 印堂이 붉다.

· 脈 : 70 肝 大腸 肝
 > 膽 <

70 心 膽 肺

· 症 : 작년 가을부터 肩臂痛이 생겼는데 자주 손목과 손가락이 붓고 발목과 무릎이 시큰거릴 때가 있다. 그리고 間或 小便이 시원찮다.

· 治療 및 經過 : 犀角湯⁷¹⁾ 4月 23日 來院 時에는 脈이 74, 70으로 떨어지고 關節의 붓는 症狀이 減少되었음. 上記의 處方을 投與함. 5月 7日 來院 時에는 脈이 90, 84로 떨어지고 關節이 많이 好轉되고 몸이 가벼워졌음. 上記의 處方을 投與함.

· 考察 : 이 患者는 印堂이 붉은 것⁷²⁾을 보아 七情으로 因하여 氣가 鬱하여 濕熱과 함께 서로 다투어 四肢에 腫이 생긴 것으로 犀角湯을 投與해야 한다. 脈이 肝의 膽脈에 떨어진 것은 七情損傷으로 보아야 한다.

6) 症

(1) 김○○(男子, 60歲) - 1998年 2月 20日 來院

· 形 : 瘦人이며 下關이 빠지고 귀와 코 爲主로 생김. 三焦가 結한.

· 色 : 黑하고 弱赤 (印堂을 정그리고 있다.) · 症 : 腹水

· 脈 : 76 肝 大腸 肝
 > 膽 <

74 心 小腸 肺

· 過去歷 : 10年 前 肝硬化, 糖尿病 3年 됨. 1個月 前 腹水 땀.

· 治療 및 經過 : 木香調氣散⁷³⁾ 3月 20日 來院 時에는 84, 80으로 떨어지고 腹水가 차지 않았다. 그러나 大便을 보기가 힘이 든다. 上記의 處方과 함께 老人腎氣丸⁷⁴⁾을 투여함.

· 考察 : 이 患者는 印堂이 鬱하였으므로 氣鬱로 因하여 濕이 滯하고, 濕이 滯하여 熱을 일으켜 濕熱을 造成하므로써 腹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氣鬱을 푸는 木香調氣散을 투여한 것이다.

(2) 고○○(女子, 27歲로 未婚) - 1998年 5月 1日 來院

· 色 : 얼굴이 脫色되어 있다.

· 脈 : 130 脾 小腸 心
 > 膀胱 <

130 肺 膀胱 腎

70) 東醫實鑑, p. 1138

71) 東醫實鑑, p. 1309

7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 317

73) 東醫實鑑, p. 1280

74) 腎氣丸 加 益智仁, 去 澤瀉

74) 東醫實鑑, p. 1322

68) 東醫實鑑, p. 1139

69) 東醫實鑑, p. 132

- 症 : 배가 부풀어서 두드리면 복소리가 나고 배꼽이突出되어 있다. 大小便이 시원하지 않다. 病院에서 胃癌으로 診斷을 받았다.
- 治療 및 經過 : 消脹飲子⁷⁵⁾
- 考察 : 이患者는 濕熱로 因하여 脹滿이 된 경우로 그中 蟲脹에 該當한다. 그래서 消脹飲子를 投與하였으나 이미 얼굴이 脫色되어 生氣가 竭하였고 배꼽이 突出되었으므로 難治에 該當한다.

결 론

저자는 《東醫寶鑑》과 形象醫學을 중심으로 濕熱病을 고찰하고 치료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濕熱은 正氣와 邪氣로 作用하며, 內傷과 七情의 內的條件에 의해 發生하거나 東南地方(低地帶와 熱帶地方)과 여름철의 外的條件에 의해 發生한다. 濕熱病의 分布를 上中下로 살펴보면 濕熱上拍하여 面浮澤赤, 頭目不清利 등이 나타나고, 濕熱內蘊하면 嘈雜, 黃疸, 脹滿 등을, 濕熱下注하면 小便不利, 小便赤白濁, 泄瀉, 痢疾, 帶下, 疝症, 脚氣 등을 誘發시킨다. 濕熱病은 祛濕清熱, 利小便시키는 것이 大法이나 濕이 더 많으면 祛濕, 利小便 外에 補氣나 補陽을, 熱이 더 많으면 清熱 外에 補陰이나 補血을 시킨다. 濕熱로 誘發되는 疾病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飲食을 골고루 攝取하며 마음을 맑혀야 하고 適當한 運動을 並行해야 하는데 특히 膏粱厚味, 술, 生鮮膾와 生菜를 조심해야 하고, 季節로는 여름철에 心身을 잘 管理해야 한다.

濕熱病은 形象醫學的으로 形色脈症을 合一하여 살펴야 하는데 그 主된 特徵은 다음과 같다. 形에서는 膀胱體는 濕이 많으므로 濕으로부터 膽體는 熱로부터 濕熱이 造成된다. 走類는 몸에 털이 많으므로 濕熱病이 發生하기 쉽고, 魚類는 陽虛에 의해서, 鳥類는 陰虛나 火에 의해서, 甲類는 氣虛나 氣鬱에 의해서 주로 濕熱病이 發生한다. 精科는 精이 漏泄하거나 陽이 虛해서, 氣科는 氣虛나 氣鬱에 의해서, 神科는 陰虛나 火로 因해서, 血科는 血虛에 의해서 주로 濕熱病이 發生한다. 肥人은 쉽게 걸리나 쉽게 낫고 또한 쉽게 再發하며, 瘦人은 잘 걸리지 않으나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後面보다 前面이 發達한 사람이 濕熱病이 많이 發生한다. 六經形 中에서 多氣多血한 陽明形이 濕熱病이 많다. 女子는 대체로 몸이 더워서 濕熱病이 發生하기 쉽다. 色으로는 面浮澤赤한 것이 特徵이다. 흰 사람은 氣虛나 濕에 의해서, 검은 사람은 火에 의해서 주로 濕熱病이 發生한다. 脈에는 芝山圖表로는 주로 心膽, 脾小腸, 肝大腸에 脈이 나타날 때 濕熱病이 나타난다. 症으로는 膽體는 左側과 前面에, 膀胱體는 右側과 後面에 주로 濕熱病의 症狀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1. 姜天奉, 啓蒙傳疑研究, 서울, 蓋馬書院, 1974.
2. 杜鎬京, 東醫腎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3. 朴晶鉉, 消化器疾患으로 誘發된 皮膚病의 形象醫學的 治療, 서울, 大韓形象醫學會 論文集, 1998.
4. 方廣編註,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3.
5. 白根基, 《黃帝內經》에 나타난 形象에 관한 考察, 暎園大學 校 碩士學位論文, 1999.
6.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8.
7. 李挺,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8.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7.
9.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11.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82.
12.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13.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14.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5.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